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

8월 9일, 조국(曹國)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한 달이 지난 9월 9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다시 보름이 더 지난 9월 24일, 오늘까지 대한민국은 '조국 블랙홀'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民生)이 힘들다. 추석이나 태풍에도 휩쓸려가지 않았다. 모든 국가 사회적 문제들이 조국 블랙홀에 죄다 빨려 들어가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국' 만이 보일 뿐이다.

하도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사상 초유의 일이 많고 혐의점도 많아서 헛갈리기 쉽다. 나는 1987년 제1야당 평화민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에서부터 김대중 총재를 모시면서부터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特補)까지 하면서 민주진영, 개혁진보에 몸을 담아왔다. 보수와 진보, 좌와 우,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인 사회적 정의와 공동체 윤리, 기본적인 정직과 상식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다.

진영(陣營)과 이념을 떠나서 인류 보편적인 정의와 상식의 차

대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정의와 상식은 광범위하여 조금은 막연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바로 정의요,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 대다수 국민들의 선택이 언제나 전부 옳은 것은 아니다. 똑똑한 게르만민족 독일 국민들도 교묘한 선전 선동술에 속아 넘어가서 나치 히틀러를 탄생시켜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무고(無故)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라면 진즉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되었을 것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좋은 공격 기회와 대상을 놓칠리 없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밀리면 내년 4월 총선도 끝장이라는 위기감에서 결사 방어하고 있다. 다시는 지지 않겠습시다'고 당사 회의실에 붙여 놓은 여당의 결기(決氣)가 예사롭지가 않다. 서로 당(黨)의 명운(命運)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조국 임명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정의당에 대한 실망이 많아서 젊은층 등 지지층이 많이 이탈하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좌파 우파로 평가하기 좋아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자유 정의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들은 순수하다고 믿어주어야 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까지 3차례 촛불을 들었다. 3년 전 최순실 사태 때, 맨 앞장서서 촛불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90% 지지했던 20대들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측 집행부는 '현 정권이 보여 주는 부패와 위선은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국민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후벼 파고 있다.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단합해 불의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번 집회를 끝으로 학교 단위가 아닌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를 전국 대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9월 19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전국 290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33%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9월 22일 현재 전국의 사립회 소속 의사 4400여명,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920여명이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에 서명했다.

국민 여론도 조시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등 조사결과를 조국 임명 잘못했다가 잘못했다를 10%에서 21% 앞서고 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지지도 함께 추락하고 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수행 지지가 역전되어서 부정 보다 10% 이상 뒤떨어졌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빨리 과감히 고쳐야 한다. 2500여 년 전에 살았던 공자(孔子)는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고치라(過則勿憚改)'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문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검찰개혁은 찬성하지만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었다.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 등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사권·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검찰 내부의 인권 침해와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같은 불공정과 비리(非理)의 척결이 핵심이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극 응원한다.

진실과 정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으나, 거짓과 불의(不義)는 온갖 기상천외(奇想天外)한 꾀와 힘으로 숨기고 비틀고 모른다고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서 심판받는 것이 역사와 하늘의 무서운 교훈이다.

社說

'가족' 해체 방관 안 된다

2047년 한국사회에서 '가족(家族)'의 개념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로 나혼자 살거나 고령 부부만으로 이뤄진 1·2기구가 전체 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의 비율은 10가구 중 1가구 수준으로 대폭 줄어 가족이란 개념의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2047년 장래가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총가구는 2017년 1957만1000가구에서 2040년 2265만1000가구를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8년 뒤인 2047년 가구 수는 2230만3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평균 가구원 수도 2017년 2.48명에서 점차 감소해 2047년 2.03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으로 종인가구 줄면서 가구원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 한국사회에서 자녀를 낳고 사는 부부의 비중이 가장 크

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는 615만가구로 전체 31.4%를 차지했지만 2047년에는 363만8000가구로 전체의 16.3%에 불과할 전망이다. 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가 10가구 중 2가구가 채 안되는 셈이다.

반면 1인가구는 같은 기간 558만3000가구에서 832만가구로 증가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5%에서 37.3%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부만 사는 2인 가구도 309만3000가구(15.8%)에서 479만4000가구(21.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가구유형의 변화는 저출산과 고령화, 결혼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점차 결혼에 인식이 바뀌면서 홀로사는 인구가 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한편 2인 가구의 경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부부만 같이 사는 고령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1인 가구만 남는 불상사가 현실이 돼서는 안 되겠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고음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철 안개구간 운행 주의

가을철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로 인하여 이른 새벽 시간대에는 자주 안개가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시야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엄청난 위험에 놓일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노면에 습기가 있거나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

인 때는 감속해야 한다. 안개가 발생한 도로에서의 운행은 빗길이나 눈길만큼 위험한 데도 안개길의 위험성에 대하여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안개길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도로의 위험상황을 제때

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감속운행을 하여야 하며 또한 짙은 안개 발생 지역에서는 시야를 통해 들어오는 교통정보를 현저하게 감소하므로 창문을 열고 운행하면서 청각을 통해 교통상황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는 안개지역이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평소 에 익혀두

는 것도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운행차량의 전조등과 미등, 차폭 등을 반드시 켜야 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선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또한 후속차량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비상등 작동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성영 /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편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